

고법원장사태도민

○ 부사와의 光州판결지

청감사에서 회의를 주관부터
판단의 원인이 자의의 부심등
에 대해 집중중.

金忠兆의원(平民)은『법
무보고자료를 갑사전달함에
야반했다』며 행정부처의 대
국회자세 불신심을 지적.

金의원은『다른 상회에서
도 자료제출의 불신심부제가
강도있게 지적했었다』면서

『이는 행정부의 국회경사태
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』이
라며 맹비난.

이어 李喆鎔의원(平民)

도가세『자년도고서는 오염
도의 연도별 비교와 최대·
최저치를 상세히 기술, 비
교적 잘 돼있었다』 올해는
이런것들을 생략하고 간단하
만든 이유가 뭐냐』면서『안
기부의 지시를 받았느냐』고 크
게 호통.

트루이카 독무대

○ 이날 감사에서는 平民
黨의 金忠兆·朴英淑·李喆
鎔의원이 환검부제에 대해 집
중적인 질문을 퍼부어 대면사
이를「트로이카」의 독무대
가 된듯한」김.

특히 朴英淑의원은 원전문
제를 신도있게 거론하면서 날
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쳐 환
검지청산을 크게 당혹케 하
기도.

朴鍾健환검지청산이『원자
력문제는 법규에의해 환검청
소관사한이 아니다』면서 답
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
뭇거리자, 朴의원은『지역 환
검의 책임담당자로서 기본적
인 원전부제도 모르고서도 이
찌 자청 환검인이라고 말할
수 있느냐』고 또 성토.

또 李喆鎔의원은 지청장의 답
변이 시원치 않을때마다『시

정오까지 환검청산이 자의의
자원이 주동이 될것이다.
환검지청산은 전혀 생각지
못했던 원전부제가 야당의
원들의 의해 대거 자문도자
답변을 못하고 단 한한 표를
짓내는데 이바람에서 떠날
변견수만 크게 늘어나자 지
원들은『대충 넘어가려던 것이
되레 폭발하는 격이었다』고
한마디.